

2014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B형 정답

1	③	2	⑤	3	⑤	4	③	5	②
6	④	7	⑤	8	④	9	⑤	10	⑤
11	①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②	22	⑤	23	⑤	24	②	25	④
26	②	27	④	28	④	29	③	30	④
31	①	32	②	33	①	34	①	35	①
36	⑤	37	①	38	④	39	③	40	④
41	①	42	③	43	②	44	②	45	③

해설

1. [출제의도] 토의 과정에 따른 토의자의 태도를 이해한다.

이 토의는 풍물반의 연습 소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풍물반장은 자신들의 연습 소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우들에게 사과한 후, 풍물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며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풍물 동아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합창반장은 화음을 잘 만들어야 하는 합창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② 학습부장은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면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 토의에서 학생회장(사회자)은 첫 번째 발언에서, 토의를 개회하게 된 배경과 의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 토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에서, 방음 시설 설치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 토의 시간에 논의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토의 참여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토의 내용을 평가한다.

이 토의에서 학습부장은 문제 확인 단계에서 풍물반의 연습 소리로 인해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면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학습부장이 풍물반의 연습 소리로 인해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차질을 빚었는지를 알려 주었다면, 풍물 소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③ 합창반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합창 발표회의 개최일을 밝혔다. ④ 학습부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요소나 기능을 이해한다.

A형 4번 해설 참고.

5. [출제의도] 타인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A형 5번 해설 참고.

6.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로 표현한다.

감상문이라는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건>에 맞게 글을 썼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감상문]의 1문단에서는 음악회에 가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고,

2문단에서는 ‘합창 교향곡’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해설자에게서 들은 베토벤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연주를 들은 느낌과 연주회를 다녀온 소감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감상문]에는 감상 후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요에 맞게 글쓰기를 구상한다.

이동 통신 기술을 발전시킬 제도에 관해 자료를 해석하거나 이끌어 내는 것은 글의 주제와 맞지 않다.

[오답풀이] (가) 자료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비해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신문 기사이다. (나) - 1 자료는 연령대에 따라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는 실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특히 10, 20대에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경우가 적어진다. (나) - 2 자료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다) 자료는 우리나라의 저조한 저작권 의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 - 2와 (다)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침해되는 저작권 문제가 심각함을 끌어낼 수 있다. ④ (나) - 1과 (다)에서는 연령대별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끌어낼 수 있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정부와 개인의 차원에서 실천할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까?’, ‘~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쓰여야 한다. ④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으로, 개인은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동이 제시되어 있고 설의적 표현도 쓰였다.

[오답풀이] ②, ⑤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① 정부 차원의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개인 차원의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적절하게 적용한다.

A형 9번 해설 참고.

1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바르게 수정한다.

A형 10번 해설 참고.

11.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농이어’를 ‘농여’로 줄여 쓴 것은 <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른 것이지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1]에 따른 것은 아니다. ‘농이어’가 ‘농-’로 시작되어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1]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규정은 ‘농아’가 ‘냐’로 줄어들 때에만 적용된다. ‘농이어’를 ‘농여’로 줄여 쓴 것은 ‘농이-’의 ‘ㅣ’ 뒤에 ‘-어’가 왔기 때문이므로, “ㅣ” 뒤에 ‘-어’가 와서 ‘냐’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른 결과이다.

[오답풀이] ③ ‘누이니’를 ‘뉘니’로 쓴 것은 ‘ㄷ’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ㄱ’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따른 것이다.

12.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한다.

A형 15번 해설 참고.

13. [출제의도] 외래어 표기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프랑스의 수도를 적을 때 ‘파리’로 적어야 할까, ‘빠리’로 적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외래어 표기에는 된 소리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제4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파리’로 적어야 한다.

‘racket’의 발음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 ‘ㄷ’, ‘ㅅ’,

‘ㅌ’ 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외래어 표기 시 받침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제3항 따라 판단할 수 있다. ‘ㅅ’으로 표기해야 한다.

‘[t]를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 모만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제1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담화의 기능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형 14번 해설 참고.

15.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바르게 수정한다.

㉠에서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문장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든지’을 써야 할 자리에 ‘-던지’를 썼기 때문이다. ‘-든지’와 ‘-던지’는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은 어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오답풀이] ② 사람을 포함한 유정물에는 조사 ‘에게’를 쓰며 그 외의 무정물에는 조사 ‘에’를 쓴다.

16. [출제의도] 근대 국어 자료를 통해서 음운 현상의 변화를 파악한다.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모음조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제시된 18세기 문헌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찾는 문항이다. ㉠ ‘하늘을’의 경우,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면 ‘하늘’이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오는 목적격 조사는 ‘을’이 아닌 ‘을’이 되어야 한다.

[17~18] (과학) 이광웅(공저), 「생물의 과학」

이 글은 식물의 다양한 방어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물의 세포는 병원체의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방어 체계를 작동하여 병원체를 물리치는데, 이때 세포 내의 여러 조직이 유기적으로 작동된다. 이 밖에도 식물은 다양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시각 자료와 연관 지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식물의 세포가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세포의 방어 체계가 작동된다. 이 과정에서 세포의 핵은 다당류를 생산하는데, 이는 세포벽을 보강하여 병원체의 추가 침입을 막는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벽이 보강된다고 해서 세포막 수용체가 병원체의 효소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리한다.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은 식물이 병원체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세포는 병원체에 의해 감염된 부위에 있는 자신의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이를 통해 식물은 감염된 부위를 자신과 분리시킬 수 있다.

[19~21] (인문) 이장호 외, 「상담 심리학의 기초」

이 글은 다양한 상담 이론 중 대표적인 상담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적 상담, 인간중심적 상담, 인지행동적 상담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상담 이론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주제와 글의 핵심 소재를 파악한다.

다양한 상담 이론 중 대표적인 3개의 상담 이론을 다루고 있다. 각 상담 이론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여 주며, 각 이론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기술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의미를 추론한다.

인간중심적 상담은 내담자의 고민과 문제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상담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내담자를 존중해 주고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되어 있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②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여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 중 유의미한 것들을 가려 해석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의식을 이해하게 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③, ④ 인간중심적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체를 중요시한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돕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무조건 존중하는 자세로 내담자를 대해 내담자의 외적 가치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해체하도록 한다.

21.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한 사건이 가져올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담은 인지행동적 상담이 아니다. 인지행동적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밝혀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⑥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내담자가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은 ‘꼭,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여 바꾼다.

[22 ~ 23] (생활 독서) (가) 홍대용, 「철교에게 준 편지」 / (나) 홍길주, 「수여방필」

22. [출제의도] 글쓴이의 독서 태도를 파악하여 적용한다.

(가)의 글쓴이는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독서를 마친 것이 아니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에서 ㉠은 『논어』를 외울 정도로 읽었으나 행동은 읽은 것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므로, (가)의 글쓴이 입장에서는 독서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④에서 ㉠이 ‘대충대충 섭렵’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는 사람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독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한다.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긴다면 다른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라고 밝힌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그렇진대 독서란 것은 그 공부가 진실로 끝이 없어, 실로 배우는 자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금의 독서에 대한 ‘한 책을 다 읽고는 자기 일을 이미 마쳤다고 말하며, 함부로 날뛰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에서 알 수 있다.

[24 ~ 27] (사회) 최정표, 「시장집중률」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A형 24번 해설 참고.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한다.

A형 25번 해설 참고.

26.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A형 26번 해설 참고.

27. [출제의도] 글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한다.

A형 27번 해설 참고.

[28 ~ 30] (예술) 임성훈, 「공공미술」

이 글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공공미술은 공공성의 성격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의 자율성은 대립하지 않음도 밝히고 있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4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했기 때문에 ④와 같이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했다고 할 수 없다.

2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작품은 사람들이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다.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대중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므로 <보기>의 작품은 참여 중심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보기>는 예술의 공공성을 위해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A]에서 공공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31 ~ 34] (교전소설) 작가 미상, 「숙향전」

이 작품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격강한 숙향이 많은 고행을 겪은 후에 다시 천상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의 적강 소설이다. 특히 등장인물 대부분이 천상계에서 득죄하여 인간계로 쫓겨나 속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숙향과 인연을 맺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제시된 장면에 드러나는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용녀는 선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옥제의 말을 인용하여 ‘~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라는 말을 전하며 숙향의 미래를 알려 주고 있다. 또 숙향이 선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녀가 숙향에게 ‘~앞에 또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태율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숙향의 미래를 알려 주고 있다.

32. [출제의도] 적강 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용녀는 옥제가 물을 지키는 관원에게 숙향을 죽이지는 말고 옥만 보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김 상서의 딸인 숙향을 구하기 위해 자원해서 인간계로 왔다고 했으므로 옥제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계에 왔다고 볼 수는 없다.

33.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슬 같은 차’는 숙향이 천상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고, ‘동정굴 같은 것 두 알’은 숙향이 천상의 기억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34. [출제의도] 이야기에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사향은 숙향을 포함하여 옥제에게 벌을 받아 죽었으므로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을 지닌 ‘자업자득’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부화뇌동: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③ 와신상담: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피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⑤ 풍전등화: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 37] (현대소설) 현진건, 「고향」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기차 안에서 만난 ‘그’와 가까워지면서, ‘그’의 고달픈 인생 역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농촌의 피폐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의 수탈 아래 고향과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식민지 민중들의 비극적 현실이 형상화되어 있다.

35.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상황과 인물의 심리 변화를 이해한다.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서간도로 이사했지만, 정작 서간도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평안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고향에서 ‘그’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③ ‘그’는 부모님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는다. ④ ‘그’는 벌이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다가 고국 산천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 일본을 떠났다.

36. [출제의도] 특정한 내용이 작품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사적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A]는 ‘나’가 들은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용이다.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농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농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암울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A]의 뒤로 이어지는 ‘그’의 서간도행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37. [출제의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러 온 ‘그’는 백여 호 살던 동네가 완전히 없어진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괴로움이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향상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유랑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일제의 수탈이 심각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 앞에서 아쉬움과 허탈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 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38 ~ 40] (현대시) (가) 유치환, 「깃발」 / (나) 고은, 「속(續) 눈길」

(가) 유치환, 「깃발」

이 작품은 깃발의 속성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상을 향한 동경을 놓지 않는 인간 존재의 모순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 고은, 「속(續) 눈길」

이 작품은 눈으로 덮인 길을 바라보며 방황과 고통의 삶을 지나온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화로움과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과 (나)의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보이지 않는 움직임을’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

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는 종결어미 ‘~하노라’를 통해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가), (나) 모두 독백체에 가깝고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은 인간의 근원적인 이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시의 맥락을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방황과 고뇌의 시간을 지나 눈길의 포용력을 인식하고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썹이는 눈 더미’는 험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진 포용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1 ~ 43] (고전시가) 윤선도, 「견회요」

41.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한다.

A형 41번 해설 참고.

42. [출제의도] 외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A형 42번 해설 참고.

43.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이해한다.

A형 43번 해설 참고.

[44 ~ 45] (수필) 이태준, 「일본어」

44. [출제의도] 내용 전개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4번 해설 참고.

4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A형 45번 해설 참고.